모토 팟캐스트 – 시즌 7, 에피소드 267

안녕 서울! 로베르토, 엘레나, 로저의 한국 이야기

에피소드 대본

로베르토 라킨, 엘레나 트라바이니 진행, 서울 인사동에서. 자동 음성 인식을 바탕으로 다듬은 대본입니다.
mottopodcast.org

로베르토: 모토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로베르토 라킨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사람은…

엘레나: …엘레나 트라바이니입니다! 모두 좋은 아침, 좋은 저녁이에요.

로베르토: 저희는 지금 한국 인사동에 있는, 꽤 개성 있는 카페에 앉아 있어요. 먼저 안심시켜 드릴게요. 이번에는 로저가 아무 문제 없이 저희와 함께 비행기에 탈 수 있었고, 그래서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엘레나: 그리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로베르토: 제 한국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할게요. 월요일 아침에 서울의 어느 거리를 지나가셨다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깡통을 발로 차고 있는, 아주아주 화가 난 로베르토를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이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그다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희는 이탈리안 위민 코리아 그룹과 함께하는 블라인들리 댄싱 일정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녀야 했어요. 정말 멋진 행사인데,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저는 국제 카드를 만들어서 원화를 충전해 두었는데, 어디에서도 받아 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현지 화폐 현금이나 한국 카드로만 결제를 받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내견을 태워 주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도 법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한국어로 다퉈야 해요. 결국 세 시간, 인도에서 저희를 태워 줄 택시를 기다리며 세 시간을 보낸 뒤에, 이탈리아어를 하시는 친절한 한국 분과 영상 통화를 해야 했어요. 그분이 이러셨죠. "아니, 아니, 영상통화 끊지 마세요! 지금 택시를 세우세요.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엘레나: 그래서 다 같이 택시에 탔고…

로베르토: …다 같이 택시에 탔는데, 그분은 휴대폰으로 저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엘레나: "아니, 아니, 아니, 전화 끊지 마세요, 제가 봐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탈리아 문화원을 통해서, 택시는 안내견을 반드시 태워야 한다는 한국의 안내견 관련 법이 적힌 종이를 인쇄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실 일이 있다면 문화원이나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정말, 정말 친절하게 알려 주시거든요.

로베르토: 모든 면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이탈리아 문화원의 에리카 스파시아 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한국의 이탈리아 여성 모임의 사라 페리 님, 그리고 물론 한국에 계신 모든 이탈리아 여성분들께도 감사드려요. 모두 정말, 정말 최고예요. 사랑해요, 꼭 안아 드릴게요!

엘레나: 그럼요! 미술을 공부하는 대학교인 서울예술대학교에서도 멋진 행사를 했는데, 학생들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도 정말 좋았어요. 로비, 당신은 음악 CD랑 책, 그리고 이것저것 천 가지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당연히 로비는 천 가지를 사야 했으니까요…

로베르토: 기념품 충동구매자거든요, 정말 좋아해서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시각장애인이, 특히 안내견과 함께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적어도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해요. 휴대폰을 들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촬영해 보려고 해도, 전부 한국어로 쓰여 있거든요. 네, 정말 난감해요, 전부 한국어예요. 일본처럼 지하철 개찰구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있어야 할 텐데"라고 말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예요. 저희에게는 티머니라는 카드가 있는데, 현금으로 충전해서 지하철, 기차, 버스 개찰구나 일부 작은 가게에서 찍고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카드는 늘 다른 한국 사람들과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엘레나: …그래도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어쨌든 지나가게 해 줬어요.

로베르토: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돈도 안 내고 몇 번이나 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엘레나: 티머니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로비는 실물 카드를 써야 했지만, 저는 휴대폰 앱으로도 단말기에 찍어서 쓸 수 있었어요. 그게 더 편해요. 다운로드해서 충전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비자 카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비자 카드가 있어서 당연히 모바일 버전을 충전할 수 없었어요.

로베르토: 여기서 비자 카드는 실물 카드로만 받아요. 나머지는 마스터카드가 대세예요.

엘레나: 가게에서는 가끔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지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처럼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 현금이 꼭 있어야 해요.

로베르토: 현금이요! 서울에는 현금만 받거나, 기껏해야 아까 말한 티머니 카드만 받는 길거리 가게가 정말 많다는 걸 알아 두세요.

엘레나: 뭐라고 할까…

로베르토: 처음에는, 말했듯이,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안 돼서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차별받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차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쇼핑몰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말 그대로 로저에게 반해 버린 거예요.

엘레나: 로저 래빗이 대박이 났어요! 싱가포르에서 도쿄, 그리고 여기 서울까지, 이번 여행 내내 스타였어요. 온갖 자세로 사진이 찍혔고, 이제 이 꾀돌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버렸어요. 누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얌전히 있는 대신 배를 하늘로 하고 벌러덩 누워요…

로베르토: …맞아요…

엘레나: …배를 긁어 달라고 하고, 온갖 애교를 부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사진을 찍죠.

로베르토: 여자아이들이 로저 사진을 찍고, 아이돌 잡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로저에게 달려갔어요!

엘레나: 맞아요, 로저가 새로운 한국 슈퍼스타예요!

로베르토: 자, 어디를 가 봤을까요? 대표적인 명소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에 갔어요. 높이가 555미터예요.

엘레나: 그리고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그 높이를 온몸으로 느꼈죠!

로베르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타워 중 하나예요. 물론 도쿄 스카이트리가 100미터 넘게 더 높지만요. 그런데 뭐랄까, 주변에는 별게 없어요. 쇼핑몰뿐이거든요. 이런 신도시 지역에 쇼핑몰이 있는 두세 개의 타워가 있고, 그 정도예요.

엘레나: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비싼 가게들이요.

로베르토: 뭐, 올라가면 경치는 좋아요.

엘레나: 그래도 내가 정말 멋진 경험을 시켜 줬잖아요!

로베르토: 자, 이 타워에서 인상 깊었던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쁜 쪽, 하나는 좋은 쪽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게임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들 사진이 곳곳에 있어요. 그들이 우승한 게임에 나오는 왕좌까지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엘레나: 그리고 다들 그 게이머들 사진을 찍고 있었죠!

로베르토: 그런데 가장 멋졌던 건, 어느 순간, 아마 120층쯤에…

엘레나: …바닥이 전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가 보여요! 로저도 조금 떨었죠, 그렇지, 로저? 정말 용감해서, 저랑 로저는 바닥에 누웠어요…

로베르토: …셀카도 찍었고요…

엘레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자리도 다 빼앗으면서요!

로베르토: 네, 맞아요. 쇼핑몰은 정말 넘쳐나요. 중심가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삼성 공식 매장은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이름을 다르게 발음하거든요.

엘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삼성 매장이 어디예요?" "네? 뭐라고요?" "삼성이요! 삼성, 코리아!"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로베르토: 결국 로고를 보여 줬더니, "아, 삼성!"

엘레나: 아이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예요. 언어가 정말 큰 문제예요.

로베르토: 이번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릴 장소 대부분을 제가 발음을 못 해요. 그래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엘레나: …창피당하지 않으려고요!

로베르토: 또 다른 명소는 궁궐, 왕궁인데요, 조금 특별한 지역에 있어요. 여러 지하철역과 기차역에서 나오면…

엘레나: …거의 전부 음식점인 골목길을 걷게 돼요…

로베르토: …아니면 남녀용 한국 전통 의상, 일종의 한국식 기모노를 빌려주는 가게들이요.

엘레나: 저도 입어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싫다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로베르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1분간 묵념합시다. 제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와야 하는 핑계예요. 마지막 날에야 지하철 타는 법을 익혔으니까요.

로베르토: 자, 사실은 이런 대여 가게 중 한 곳에 들어갔는데, 안내견 로저가 있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제가 "한국에도 안내견 관련 법이 있잖아요"라고 했더니, "아, 네, 네, 법은 알지만 개가 더럽힐 거예요. 제발 나가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풀이 죽어서 나왔어요.

엘레나: 궁궐은…

로베르토: …넓은 구역인데, 몇 유로, 2~3유로 정도의 입장료를 내면…

엘레나: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건물들이 모여 있어요…

로베르토: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 복원된 건물들이에요.

엘레나: 그리고 아직도 복원 중이에요.

로베르토: 네, 이 지역은 여러 번 파괴됐거든요. 1590년 무렵, 첫 번째 일본 침략 때 화재가 있었어요. 노비라고 불리던 조선의 노비들이 이곳에 불을 질렀는데, 자기 이름이 노비 신분과 함께 적힌 문서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태워 버리면 어쩌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일본 강점기 때, 이곳에 있던 많은 기념물과 건물이 파괴되어서 남은 건…

엘레나: …아주 조금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짓고 있어요.

로베르토: 그래서 모양은 전통적이지만, 건물은 새것이에요.

엘레나: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사실상 사진만 찍을 수 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었다면 정말 멋진 사진이 나왔을 텐데, 알아 둬요!

로베르토: 저는 작은 섬과 작은 정자 같은 것이 있는 인공 연못 앞에 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엘레나: …최초의 무선 통신이 시작된 곳이래요…

로베르토: …90년대 무렵에요.

엘레나: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고 우산까지 든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우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로베르토: 정말 멋진 스타벅스 매장에 갔어요. 저희가 스타벅스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전 세계 어디에나 특별한 매장이 있잖아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유명한 한강을 일부 따라 이어지는 공원에 갔는데요, 거기에 크루즈선 같은, 3층짜리 작은 배가 있어요…

엘레나: …다리를 건너 들어가는데, 거대한 카페예요…

로베르토: …거기에 스타벅스도 있고, 위층에는 갤러리도 있어요.

엘레나: 사실 거의 다 스타벅스예요.

로베르토: 거의 전부요, 다른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예쁜 스타벅스 우산을 샀어요…

엘레나: …그걸 당신이 바로 망가뜨렸죠!

로베르토: 궁궐에서 우산 끝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어딘가에 걸렸나 봐요.

엘레나: 보세요, 내 우산까지 망가뜨렸어요! 그래도 배우는 게 있어요. 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바닥에 여러 가지를 알려 주는 표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길이 거의 전부 한국식 교통 표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집 근처 공원에 가면 잔디밭 사이에 흙길이 나 있는 게 익숙한데, 거기는 길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방향별로 나뉘어 있고, 노란색과 흰색 횡단보도, 화살표, 정지 표시까지 있었어요. 신호등만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고, 놀고 있는 공원 한가운데였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로베르토: 서울의 또 다른 명소는,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 대로, 동묘 시장이에요. 발음은 정말 죄송해요. 1980년대에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온갖 물건의 부품과 헌 옷을 살 수 있도록 생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벼룩시장이죠. 최근 몇 년 사이 헌 옷을 사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유튜버와 아이돌 덕분에 유명해져서 다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정말, 정말 슬퍼요. 빨지도 않은 채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물건들, 구멍 나고 조금 더러운 것들이요. 이번 여행의 모토 팟캐스트 스태프인 마르코와 함께, 전구와 조금 레트로한 물건을 파는 80년대 스타일 가게에 들어갔어요…

엘레나: …그리고 거기 계신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램프를 사고 싶은데요."

로베르토: 그런데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엘레나: "좋아요, 그럼 이걸 살게요." "안 돼, 안 돼!"

로베르토: 아무것도 팔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파이프, 철판, 그러니까 DIY에 필요한 모든 걸 파는 가게들도 있었어요…

엘레나: …시곗줄이요! 시곗줄이 어디에나 있었고, 시곗줄이 가득 든 상자를 팔았어요…

로베르토: …아니면 벨트 버클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지만, 모든 게 조금 슬프고, 활기가 없었어요.

엘레나: 그 동네에서는 웃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로베르토: 마찬가지로 아주 큰 쇼핑몰인 테크노마트도 있어요. 10층인지 12층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전자제품, 카메라, 비디오 게임 전용이에요. 전자제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는 매장이 층마다 가득한데, 전부 조용해요.

엘레나: 아침 10시에 갔는데 손님이 저희뿐이었어요. 정말 저희밖에 없었어요.

로베르토: 여행 가방, 캐리어를 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매장, 말하자면 다른 가판대의 점원들이…

엘레나: …카페에 가서 그 가게 점원들을 불러다 줬어요. 다들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었거든요.

로베르토: 중고폰 전용 층이 정말 특이했어요. 일종의 갤러리 같은 곳을 걸으면 줄줄이, 끝없이 중고 휴대폰이 늘어서 있었어요. 노키아 3310까지 있었어요!

엘레나: 여러분, 3310이라니, 거의 목가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비가 고양이 귀 모양의 무선 이어폰을 샀어요. 물론 분홍색이랑 보라색이고, 엄청 멋지고, 불까지 들어와요. 한국식 귀여움에 맞추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로베르토: 그래도 저희가 가장 좋았던 곳은 지금 있는 인사동이에요. 벌써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엘레나: 지역 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는, 조금 전통적인 동네예요.

로베르토: 지금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건물에 있는데요…

엘레나: …다리 같은 게 있어요…

로베르토: …나선형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어 주는…

엘레나: …이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전부요. 그래서 이 다리를 따라 걸으면…

로베르토: …여러 종류의 작은 가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엘레나: 정말 놀라워요!

로베르토: 지금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동안, 어떤 분이 모토 팟캐스트와 블라인들리 댄싱 도장을 만들어 주고 계세요. 빨리 찾으러 가고 싶어요!

엘레나: 플라스틱으로 어떤 물건이든 만들 수 있는 가게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뭐든지 나만의 것으로 꾸밀 수 있거든요. 정말 끝내주는데, 그것도 못 하게 했어요!

로베르토: 그래서, 뭘 꾸미고 싶었는데요?

엘레나: 휴대폰 케이스요. 풀로 만들고 싶었어요.

로베르토: 휴대폰 케이스요. 한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엘레나: 그래서요? 그게 다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제발, 나만의 물건, 분홍색, 고양이, 아기 고양이, 그리고 한국의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 부탁이에요. '좋아요'를 누르고 "엘레나 1, 로베르토 0"이라고 써 주세요. 엘레나 1, 로베르토 0! 어차피 이제 스킨케어 차례예요.

로베르토: 스킨케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신주쿠 같은, 하지만 조금 더 작은 동네에 가야 해요. 밤늦게까지 길거리 음식이 있고…

엘레나: …그리고 아주 많은…

로베르토: …스킨케어 가게들,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 볼 거예요.

엘레나: 요즘 할인 기간이에요.

로베르토: 선물하려고 마스크팩을 몇 개 샀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하나에 30유로인데 여기서는 1유로, 2유로예요. 말도 안 돼요! 공항에서 엄청 큰 가방을 든 여자분들을 봤는데…

엘레나: …이런 뷰티 제품이 꽉꽉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니 제가 화장을 얼마나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로베르토: 저는 아주 예쁜 자석 가게들을 봤어요. 여기에는 장인들이 많아요. 저는 보름달 모양의 달항아리를 샀는데, 정말, 정말 아름답고 특별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는 탑 모양 향꽂이도 샀어요. 서울과 한국의 제 기념품이에요.

엘레나: 그리고 뭐라고 할까, 서울은 거리를 걷기 좋은 곳이에요. 솔직히 길을 잃는 것도 좋아요. 지하철로 환승을 다 하다 보면 어차피 길을 잃거든요. 그리고 앞이 보여도 길을 잃어요. 장담해요, 마르코가 증인이에요, 불쌍한 마르코! 어느 역 밖에서 길을 잃다가, 일종의…

로베르토: …진짜 금 시장을 발견했어요, 아부다비처럼요.

엘레나: 지붕 아래로 들어가는 작은 구역이 아주 많고, 네모난 가판대가 여러 개 있는데, 둘레에 벤치가 있어서 앉으면…

로베르토: …점원이 네모 한가운데에서 여러 물건을 꺼내 보여 줘요. 금빛 장신구인데, 진짜 금이고, 보석도 있어요.

엘레나: 네. 여기서는 말랑이가 유행이에요, 이런…

로베르토: …만지면 썩은 달걀이나 생선튀김, 빵을 만지는 것 같은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이요. 이런 걸 만지작거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이 있는 분은 온갖 종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은…

엘레나: …커피 체인점이 있고…

로베르토: …여기서는 커피를 아주 큰 컵에,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마셔요.

엘레나: 맞아요, 얼음을 넣어서요.

로베르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인점인 도조 커피 리저브를 찾았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하고 거친 질감의 아름다운 수제 도자기 잔을 샀어요. 이탈리아에 돌아가면 빨리 써 보고 싶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잔을 엄청 많이 샀어요.

엘레나: 네, 복수하려고 제가 전부 깨 버릴 거예요! 당연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실용적인 이야기를 다시 해 볼까요?

로베르토: 네.

엘레나: 마르코가 이동을 도와준 나흘이 지나고, 저희는 드디어 완전히 혼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지하철에 대해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바닥에 표시된 색깔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로베르토: …벽에 있는 것도요.

엘레나: 지하철 노선마다 색깔과 번호가 있어요. 보이는 안내를 따라가세요. 안 보이시면 네이버 지도라는 앱이 있는데, 길 안내가 아주 정확해요. 몇 미터를 걸어야 하는지, 언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야 하는지까지 알려 줘요.

로베르토: 구글 지도는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네이버를 써요.

엘레나: 맞아요, 네이버요. 지하철에서도 언제 내려야 하는지 알려 줘요.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이것도 아주 편해요. 시간은 걸려요. 서울은 다른 도시들만큼 직관적이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제 생각에는 도움을 청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번역기를 정말 많이 쓸 각오를 하세요. 특히 음식을 먹을 때요, 여러분. 안 그러면 빈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로베르토: 구글 번역 같은 걸 써야 해요. 일상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 늘 그걸 써요.

엘레나: 관광 도시 같지도 않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잘 된 곳 같지도 않다고 할까요…

로베르토: …관광객은 거의 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은 꽤 많이 봤어요. 흥미로운 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말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날인 오늘, 시각장애인 한 명과 휠체어를 탄 사람 한 명을 본 정도예요. 여기서 장애는 아직 숨기는 것, 조금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는 안내견을 만지지 말라는 것, 안내견이 있다는 것, 어떻게 일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정작 안내견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서는 삼성이 한국 안내견 학교의 후원자이기도 한데, 안내견은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엘레나: 10월 15일은…

로베르토: …흰지팡이의 날이었어요. 강을 따라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걷는 행사를 했는데, 저희도 가려고 했지만 길을 좀 잃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시는 일부는 현대적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뉴욕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를 본뜬 곳이라고 할까요.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건, 다른 대도시와 달리 사람들이 휴대폰을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요.

엘레나: 다른 곳에서는 모두 휴대폰만 보는데, 여기서는…

로베르토: …절반은 휴대폰을 보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야기를 해요.

엘레나: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해 줄게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동네는 정말…

로베르토: …활기차고,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엘레나: 서울, 아름답지만 다시 봐야 할 곳이에요.

로베르토: 네, 여유를 갖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 드려야겠어요. 저희 모험 이야기가 즐거우셨기를 바라요. mottopodcast.org 사이트의 이번 에피소드 설명에서 사진과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다른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 모토팟에 올리고 있어요. 꼭 보러 가시거나, 인스타그램 채널도 확인해 주세요.

엘레나: 서울에서는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로베르토: …해외에 사는 이탈리아인 특별 인터뷰가 방송될 거예요.

엘레나: 이탈리안 위민 코리아 그룹의 사라 페리 님이 나오고, 또…

로베르토: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한 이탈리아 분을 여기 서울에서 만났어요. 스포일러는 안 돼요…

엘레나: …말씀드릴 수가…

로베르토: …없어요! 그리고 로저 서류를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다니다가, 동물병원 옆에 이탈리아 식당이 있었는데…

엘레나: …최근에 무려…

로베르토: …텔레비전 프로그램 '리틀 빅 이탈리'에서 우승한 곳이었어요.

엘레나: 그래서 저희가 뭘 했을까요? 맞혀 보세요. 밥을 먹고…

로베르토: …먹는 것 말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세히 들으실 수 있어요.

엘레나: 서울에서는 여기까지예요. 저희 다음 일정은… 도장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로베르토: 아, 맞다, 도장 찾으러 가요!

엘레나: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도장을 받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모두 안녕!